

다윈 대 라마르크

새로 시야 개관.

김박사는 밀창이 다 닳은 구두를 신으면서 생각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 도로가 다 얼었다는데... 하긴 조심하면 되지.

박사는 문을 열고 나섰다. 그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을 내딛는 순간, 구두가 미끄러졌다. 몸이 뒤로 넘어갔다.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면서 그는 정신을 잃었다.

“상태가 어때요?”

“가망 없어요. 중요한 사람인가요?”

“특급에 속한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양쪽 다 채취해야겠네요.”

그런 대화가 오간 뒤, 박사의 뇌와 교환에 주사 바늘이 삽입되었다. 두 곳에서 채취된 생체는 S134-B, S134-T란 표지가 붙은 병에 넣어져 어디론가 실려갔다.

20년 후.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흰 가운을 입은 사람 네명이 한 소년 주위에 둘러 서 있었다. 이름이 연수인 소년은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뜻 모를 글자들만 가득했다.

둘러 선 사람들은 연수의 입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그가 불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벌써 십여차례 그들은 그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근데 별 내용도 없는데요?”

“그러니?”

“네. 그냥 일기 써놓은 거예요. 6시에 일어나 공원 산책하고, 7시에 출근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왜 암호로

쓴 거죠?”

“글쎬?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었나? 어쨌든 우리한테는 암호 해독법이 중요한 거니까.”

그랬다. 연수가 하는 일은 암호 해독이었다. 늘 그들은 연수 앞에 암호로 쓰여진 화면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것을 해독해주었다. 처음 그 일을 했을 때 그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이걸 못 풀죠? 정말 쉬운데?”

그 때 연수를 부른 사람은 허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글쎬다. 아마 너한테만 쉬운 모양이구나.”

연수는 늘 그렇듯이 해독 방법을 알려주고는 연구실을 나왔다. 연수를 움직이는 일은 동생인 연희의 몫이었다. 그는 온 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었으니까. 연희를 만난 것은 연구소에 처음 왔을 때였다.

“네 동생이야. 너와 같은 유전자를 이어받았단다.”

어딘가 낯설었다. 어색함을 감추려고 그는 한마디했다.

“전혀 안 닮았는데요?”

연희도 동의했다. 아무튼 둘은 곧 친해졌고 연희는 연수를 이동시키는 일을 자청했다.

“이번엔 뭐였어?”

“그냥 일기. 별 내용도 없는 거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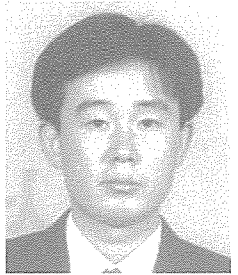
연희는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근데 정말 그거 보면 무슨 암호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응. 심심할 때 가끔 암호도 만들어보거든. 근데 그거랑 똑같아.”

“그렇구나. 나한테 설명해줄 수 있어?”

연수는 연희에게 간단한 암호 체계를 설명했다. 예상외로 연희는 쉽게 이해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독했던 암호 체계를 전부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억나는 내용까지.



이 한 음 <작가>

어느새 시간이 꽤 흐른 모양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연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연희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에게 말했다.

“저기, 다음에 올 때 유전자 증명서 갖고 올래?”

“내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남대인 건 맞아.”

연수와 자신의 증명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에 연희가 한 말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뭐가?”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닮지 않은 거야?”

그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다. 유전자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엔 암호가 아니란다.”

연수는 화면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그건 앞서 해독한 일기였다. 문제는 연구원들이 내용을 봐 달라고 한 데 있었다. 그것은 유전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은 그런 건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천천히 공부해보렴. 아마 재미있을 거야.”

연수는 동생과 함께 해석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내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일기 자체가 자신의 생각에 맞춰 흐르고 있는 듯 했다. 이런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흐름까지도.

그와 달리 연희는 흥미를 잃은 듯 했다. 그녀는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갔다.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야. 안 그래?”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재미있는 건 확실해.”

점점 둘의 의견 차이는 커져갔다. 결국 둘은 크게 싸우고 말았다. 그 뒤로 연희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연수는 혼자 일기를 해석해나갔다. 그러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리고야 말았다. 그는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연구원들이 찾아오자 연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걸 쓴 사람이 제 아버지인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수는 한가지 부탁을 했다.

“동생이 보고 싶어요.”

“안고 있었지?”

그가 묻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기 끝 부분을 미리 읽었거든.”

“이 연구는 다윈에게 밀려난 라마르크 진화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같다. 과학과 문화가 발달한 지금 다윈식 인류 진화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획득 형질을 유전시키는 것, 즉 라마르크 진화 뿐이다.”

연수가 읊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뇌 속에 생식 세포를 넣었어. 그리고 몸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그 세포 속에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지. 그 세포가 지금의 너야. 나는 고환의 생식세포에서 태어난 거고.”

“그렇다면 일부만 성공한 셈이네. 내가 이렇게 전신이 마비된 채 태어난 걸 보니?”

연희는 서글픈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완전히 성공했어. 아버지는 목 뼈가 부러져 돌아가셨거든.” ①